

# 잘 나가던 '흑기사', 어쩌다 '리턴'에 역전 허용했나



수목극 왕좌의 주인이 바뀌었다. 한동안 수목극의 절대 강자는 KBS2 '흑기사'였다. '흑기사'는 전생과 현세를 오가며 펼쳐지는 흥미로운 스토리,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영상미, 신세경과 서지혜의 압도적인 비주얼, 김래원의 탄탄한 멜로 연기에 힘입어 수목극 정상을 굳건하게 지

켰다. '흑기사'의 공세에 경쟁작인 SBS '이판사판'과 MBC '로봇이 아니야'는 제대로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채 시청자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이런 '흑기사'의 독주 체제 속에서 SBS는 '이판사판' 후속으로 '리턴'을 출격시켰다. '리턴'은 지난 17일 6.7%, 8.5%(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스타트를 끊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흑기사'는 7.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슬아슬하게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리턴'이 7.8%, 9%의 시청률을, '흑기사'는 8.3%의 시청률을 내며 순위는 뒤바뀌었다. 그리고 지난 24일 방송분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리턴'

## 흑기사, 극의 메인 메시지 · 흐름 흐트러져 리턴, 추리 · 악역들 하드캐리 등 승승장구

은 11%, 14.1%로 시청률이 대폭 상승한데 반해 '흑기사'는 8.7%의 시청률에 그치며 왕좌를 내주게 됐다. 잘 나가던 '흑기사'는 대체 어쩌다 '리턴'에게 역전을 허용할까. '흑기사'와 '리턴'은 기본적으로 선악 대결 구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흑기사'는 사론(서지혜)과 정해라(신세경)가 문수호(김래원)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리턴'은 최지혜(고현정)와 특고영(이진욱)이 염미정(한은정)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황태자 4인방' 오태석(신성록) 김학범(봉태규) 강인호(박기웅) 서준희(윤종훈)의 뒤를 쫓는다. 모든 선악 대결 구도 드라마가 그렇듯 악역의 비중과 존재감이 막강하다.

'흑기사'의 사론은 문수호를 빼앗기 위해 반지를 훔치고 정해라로 둔갑하고, 정해라 살인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한 악역의 농간을 부린다. '리턴'은 정부도 친구도 망설임 없이 죽여 버리는 오태석과 김학범의

잔학 행위로 극의 초반을 채우고 있다. 소름끼치는 악역들의 하드캐리에 힘입어 초반 몰입도를 높이고 화제성을 가져온다는 전략은 '흑기사'도 '리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흑기사'는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극의 중심을 사론에게로 넘겨버린 것이다.

24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사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웃에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론은 자신의 염원을 담아 문수호의 셔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문수호는 200년 전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장백희(장미희)는 화상 흉터가 있는 착한 여종이 부인이고 비단웃을 입은 여자는 악녀라고 귀뻐했다. 그러자 사론은 계획을 꾸렸다. 자신과 정해라의 전생의 모습을 뒤바꾼 것. 미리 장백희의 얘기를 들었던 문수호는 비단웃을 입은 정해라와 여종 행색의 사론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흑기사'는 벌써 몇 회째 사론의

복수와 집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론이 꾸민 계략에 '흑기사'가 갇혀야 할 문수호도 '흑장미'로 활약했던 정해라도 휘둘러 표류하는 그림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극의 메인 메시지는 흐려졌고 흐름도 흐트러졌다. 이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서지혜인지, 신세경과 김래원인지 헷갈릴 정도다. 물론 사론이 극의 흐름을 지배하는 중요한 캐릭터이지만, 메인인 흥분러버 리턴 드라마는 산으로 가는 법이다. 반복되는 고구마 전개에 시청자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탈 기록을 보이고 있다.

반면 '리턴'은 초반부엔 하지만 누가 진짜 살인범일지를 추리해 나가는 재미와 욕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악역들의 하드캐리,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꼭 잡고 있는 고현정의 카리스마가 시너지를 내며 자극적인 전개에도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이에 '리턴'은 승기를 땀고 '흑기사'는 역전을 허용하게 된 것. '흑기사'가 재역전에 성공하려면 메인 주제로 돌아오는 방법 밖에 없다. 너무 멀리 돌아버린 '흑기사'가 시청자의 바람대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구구단, 이제는 팀 존재감 보여야 할 때



그들 구구단이 네 번째 활동에 나선다. 구구단은 오는 31일 타이틀곡 '더 부츠'(The Boots)가 수록된 두 번째 싱글 앨범 'Act.4 Cait Sith'로 컴백한다. '더 부츠'는 지난 2016년 데뷔한 구구단이 네 번째 활동곡으로 꺼내 든 비장의 카드. '원더랜드'로 데뷔해 '나 같은 애', '초코코'에 이어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뷔곡 '원더랜드'는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 진입까지 성공하며 신예의 등장을 알렸다. 동화적인 분위기의 '원더랜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 나의 모든 걸' 나란히 찾아와 싶어서 후렴구 킬링포인트가 돋보이는 상큼발랄한 곡이었다면, 두 번째 활동곡 '나 같은 애'는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을 표현했다. 세 번째 활동곡 '초코코'는 귀엽고 감각적인 모습을 입히고 후렴구 반복으로 중독성을 일으키며 세 번의 활동곡 모두 다른 모습으로 구구단의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세 활동곡 모두 차트진입에 성공해 많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지만, 구구단 팬들 사이에서는 "곡이 팀의

매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쉬운 평가가 존재하기도 했다.

그런 팬들의 기대감을 채워준 것이 바로 새 활동곡 '더 부츠'다. 23일 아카펠라 프리뷰 영상이 먼저 공개된 '더 부츠'는 기계음 없이 이혼명의 목소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허밍과 하모니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도 멤버별 개성 넘치는 음색이 돋보여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곡이 아닌 아카펠라 버전의 곡이었지만, 공개가 되자마자 팬들 역시 "이제야 구구단에 어울리는 곡을 찾았다"는 호평을 남기고 있다.

구구단의 데뷔는 화려했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의 히로인 김세정과 강민아, 김나영이 속한 그룹이자 성시경, 빅스가 소속된 쥘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첫 걸그룹이라는 화제성을 이끌었다.

특히 김세정과 강민아가 아이오 아이로 1년간 활약을 펼쳤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팀명 앞에 소개되고 수식어처럼 붙었다. 예능 프로그램도 주로 두 사람이 출연해 팀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세정은 KBS 2TV 드라마 '학교 2017' 주연까지 꿰차며 연기돌로서의 인지도도 높였다. 그러다보니 팀의 정체성은 두 멤버 위주로 대중에게 인지되기도 했다.

이제는 팀의 매력을 확실하게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때다.

## '미약왕' 여름 개봉 확정...송강호의 압도적 위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 송강호와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강렬한 조우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영화 '미약왕'이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첫 베일을 드러내 드러냈다.

영화 '미약왕'은 1970년대 대한민국의 미약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두삼'과 그를 돕고 쫓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택시 운전사'로 지난 해 여름, 1.218만 관객을 웃고 울린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가 2018년 여름 스크린으로 귀환한다.

청불 영화 최고 흥행작 기록을 세운 '내부자들'(2015)의 우민호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미약왕'으로 관객들을 다시 만날 준비를 마친 것.

이에 '미약왕'은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첫 스틸을 공개했다. 시대와 돈, 권력을 이우른 미약왕 이두삼 역의 송강호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파격적이고도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다.

스틸 한 장만으로 '택시운전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고한 송강호는 '70년대를 관통했던 사람들을 집약해놓은 영화적 캐릭터 '이두삼'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한 시대를 조망하고자 했다"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송강호를 필두로 조정석, 배두나, 이성민, 김대명, 김소진, 이화준, 조우진, 유재명 등 대한민국 연기왕들의 눈물 뿜 수 없는 연기 향연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과 송강호를 필두로 충무로 대표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폭발적인 연기 열전을 펼칠 영화 '미약왕'은 올 여름 전격 개봉 한다.

뉴스

## '친절한 기사단' 이수근X윤소희, 이 조합 새롭다



이수근과 윤소희가 tvN '친절한 기사단'에서 혼 혼하고 새로운 조합을 선보였다.

이수근과 윤소희는 지난 24일 첫 방송을 시

작한 '친절한 기사단'에서 김영철, 마이크로트와 운전기사로 변신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공항에서 맞이해 하루 동안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사연을 들어줬다.

이수근과 윤소희는 한 조를 이뤄 외국인들을 안내했다. 이수근은 외국어를 하지 못하지만 특유의 진화력으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수근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걱정을 사기도 했다. 이수근과 한 조를 이룬 윤소희는 그런 그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영어 지원원을 다니고 과학교를 조지출업한 후 케이스까지 진화한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냈고, 이수근은 윤소희를 '윤과고'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이수근은 처음으로 예능 MC에 도전한 윤소희가 어색하지 않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그를 배려했다. 이처럼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조합을 보여준 이들이 '친절한 기사단'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감이 모인다.

'친절한 기사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 중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음력 12월 10일)



▶**경조** 미혼 남성은 혼담이 있다. 순리대로 행하면 행운의 배필이 정해진다. 지나친 자존심은 배필을 놓치는 격이니 신중히 생각하라. 서, 남쪽 사람이 인연인 듯. 5, 6, 12월생 처세에 주의하고, 한길만 택하라.



▶**세외** 가족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길 것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고, 음식도 조심하라. 애정은 부드러운 대화와 감촉이 느껴지는 손길을 상대가 원한다. 용기와 박력이 필요하다. 비, 천, 오 성씨 가정에 활력소가 필요하다.



▶**외향성** 하고자 하는 일, 진행이 순조롭다.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 집에만 있으면 병들고 짜증 나니 무엇인가 운명에 맞는 일을 하라. 구속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듯. 3, 5, 9월생 나 자신을 낮춰라.



▶**경계** 어려운 일이 산적했으나 심신이 피로하고, 짜증만 생긴다. 남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 친하다 해도 너무 믿지 말라. 오히려 본인을 이용할 공리부터 한다는 것을 알라.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일든 동업보다 힘들다.



▶**음력** 책임 있게 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할 수 있다. 나, 비, 응 성씨는 자기가 부린 세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전가는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니 받아들이라. 남의 마음을 알아줘야 자신도 이해를 받는 법이다.



▶**경계** 애당초 사람을 잘 다스리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 없이 흘린 말 탓에 큰 병변을 당할 수 있다. 사람이 무리하게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이 사람을 따라야 자연스러운 법이다. 진실한 지혜를 받아들이라. 서쪽 사람이 도움 줄 듯.



▶**경계** 변동하더니 뜻대로 안 되고, 돈 쓸 곳이 많아 용돈하자니 그것도 잘 안 된다. 현재는 불황 상태라 마음이 답답하겠다. 4, 7, 11월생 애정, 자식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라. 애정은 양보할 것.



▶**경계** 처음에는 인내하고 노력하더라도 끝맺음을 그려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행운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라. 2, 8, 12월생 자존이 없다고 여자 돈을 사용하면 조간이 붙는다.



▶**외향성** 무슨 일든 심사숙고해 결과를 추측해 보고 결정해야 해를 막을 수 있다. 대인 관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처리해서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 3, 7, 9월생 삶에 노력이 필요할 때.



▶**경계** 현재 금전 유동이 안 된다고 변동하게 되면 임시방편만 될 뿐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한다. 내달부터는 풀릴 듯하니 인내력이 필요할 때. 나, 비, 오 성씨 내 것 아니면 탐내지 말라. 관세수가 뒤따를 듯.



▶**경계** 남녀 관계에 깊이 빠지지 말라 구설이 생긴다. 분수를 망각한 행동은 가정 파탄은 물론 관세수까지 동반하니 모든 것을 억제하라. 3, 5, 11월생 부부간 대화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양보는 가정에 웃음꽃을 피운다.



▶**경계**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는 수다. 본인의 단점은 우물에서 송충 찾는 것. 달콤한 남의 말 열 마디를 듣는 것보다 가족의 진실한 충고 한마디가 본인에게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 천, 오 성씨 자기 자신을 지키라.